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페달 밟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머리맞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간담회

김관영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이어 투자 유치 유인책들을 대거 담은 법안이 발의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은 지난 22일 '새만금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자본에도 적용' 하는 것 등을 골

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그간 정부의 소극적 SOC 투자와 미진한 투자실적에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평가다.

새만금 조성 속도를 높이고자 매립을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해도 관련은 외부자본들의 투자였다. 실제

로 민간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돼 입주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를 하게 된다. 또 기존 외국투자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되어 온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후에 대해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유인책 부족으로 투자결정을 주저하던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새만금을 비단 전북지역의 비전이 아니라 환서해시대 명실상부한 경제거점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 특히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전년 대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는 시공업체가 현실시

공을 위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분리, 분할 발주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홍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발주토록 하겠다"며,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건설지원과'를 '지역발전지원과'로 개편함에 있어 전라북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전북도와 협조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우리 이제 놀아요” 크리스마스트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2017 신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에서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인형탈을 쓴 관계자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도 공직비리 사전예방 으뜸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 차지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2일 제주에서 열린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처벌의 감사·감찰이 아닌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와 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확산

하고 전북청렴도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부통제시스템(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다양하고 우수한 청렴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

정하고 선정된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발표, 최종 수상기관이 확정된 것이다.

도는 지난 12월 초 행정안전부의 서면심사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22일 감사협력 포럼 행사장(제주 대명리조트)에서 우수사례 중심의 시책들을 발표하고 시·도 감사관들이 심사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박용준 감사관은 “감사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감 아래 적극 협력해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천참사 장례식 이후 화재 원인규명 돌입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 범정부 조사가 희생자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25일 소방청 주관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제천 화재원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을 단장으로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영 등 5개 분야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조사단은 화재 원인은 물론 소방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따져 내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활동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소방방화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상황접수·보고·전파, 고가·굴절차 특수차량 조작능력 등 인연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방대응활동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 대외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10명을 조사단에 포함시켰다. 소방청은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 및 후속 개선대책을 다음달 12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내년 1월 중반 이전에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와 더불어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관계부처와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앞장

농식품부 우수사업장에 6개소 선정... 전국 50% 차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한 전국 12개소 중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6개소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인증은 2016년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직거래법)에 따라 처음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지난 11월 농식품부가 서류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직거래·지역농산물 취급비중, 생산정보·안전성 관리, 소비자 교류 등으로 인증기준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2012년 직매장을 전국 최초로 개장한 이래,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

링과 중소농의 연중 기획생산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과 유통시설 신축·보완 등을 했다.

중소농의 제값받는 농업과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적극 추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한걸음 앞선 전북 로컬푸드가 산락농정의 제값받는 농업으로 더욱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하며, “2014년부터 운영한 도 인증 직매장 제도, 소비자 모니터링 등을 농식품부 인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빈틈없는 건축행정 · 찾아가는 주거복지 활발

익산시, 주민 삶의 질 향상 최선... 도 최우수기관상 수상

익산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빈집정비, 공동주택지원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해 전북도 주관 '2017년 주택·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111동에 대한 빈집정비와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희망의집 고쳐주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을 통해 600세대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했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빈집정비, 희망의집 고쳐주기, 농촌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주택개보수와 집수리사업 등에 협업시스템을 활용해 시각장애가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추진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독거여성노인, 모자가정, 소년가정가정 등을 집중 지원해 여성가장세대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빈틈없는 건축행정, 찾아가는 주거복지행정으로 더불어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